

哲學上으로 본 生存의 意義 (二)

哲學의 定義와 實在 探究의 形式

韓稚振

이 여러 實體論은 宇宙의 實在을 量的으로 보는데서 作成된 것이나 우리는 宇宙의 實在을 質의 見地에서도 論究할 수 있는 것이다. 이 宇宙的 實在의 本質은 物質的이오 精神이란 것은 物質的 活動의 附帶現象에서 不過하고 모든 事物의 根本은 物質이라 하는 主張은 唯物論이라 한다. 萬一 이 物質的 實在가 一個라 하는 境遇에는 唯物論的 一元論이 되고, 萬一 이 宇宙는 多數한 物質的 存在로 成立되었다 하면 唯物論的 多元論이 된다. 以上 唯物論의 反對로 이 宇宙의 實在은 物質이 안이오 精神이다. 所謂 物質이라는 것은 精神의 産物이오 影子이라 하는 事物觀은 唯心論 혹은 精神論이라 한다. 여기에 宇宙의 精神은 單一個라는 精神的 一元論과 이 宇宙는 多數한 精神的 實在로 成立되었다는 精神的 多元論으로 分間할 수 있다. 萬一 이 宇宙의 實在은 以上 物質과 精神이 合하여 되었다 하면 이는 二元論인데 이 哲學的 二元論은 原始人의 素朴한 精靈觀的 二元論과 相異한 것이다. 心理的 現象과 物質的 現象과의 關係는 엇더하며 엇더케 兩者가 並存하게 되었는지 하는 矛盾 等を 合理的으로 說明하여야 할 것이다. 이러한 諸問題를 哲學적으로 論究한 것이 現代 二元論이니 그 代表者 『제카트[데카르트]』 一派이다.

宇宙의 實在은 다시 動的이나 靜的이나 하는 見地에서 論究할 수 있다. 以上の 各種 實在論은 다 動的과 靜的 見地로 分類할 수 있다. 唯物論 中에도 動的 見地나 靜的 見地를 取하는 者가 있고 有神論 中에도 兩 見地를 다 採用한 이가 있다. 또한 一元論이든지 多元論이든지 다 이 宇宙를 靜的으로 或은 動的으로 보는 學者가 있는 것이다. 質的 一元論에 잇서서 心物 兩者를 다 包含한 根源的 實體가 있는데, 그는 自存 自動이요 그 自身은 絶對不變이라는 學派도 있다. 이 不變的 實體는 곧 神이다. 여기서 萬物은 創造되고 流出되든지 한다는 것이다. 그러나 不變的 根源에서 變遷的 現象世界가 엇더케 流出되었을가 하는 問題는 이 實體的 一元論의 難關이다.

現代科學과 進化論 思想이 發達됨을 卞라서 以上 不變的 絶對一元論의 代身에 이 宇宙의 實體는 流動, 變轉의 過程으로 보는 見地가 普及되게 되었다. 여기에도 機械的 變遷主義와 活精的 創造主義를 分間할 必要가 잇스니 前者는 純全히 唯物論的 變遷主義오 後者는 唯心論的 變遷主義이다. 現代 科學者들은 物質不滅의 代에 精力不滅을 밋고 이 宇宙는 機械的 精力 轉化의 過程으로 看做한다. 唯心論의 見地에서 轉化的 一元論을 主張하는데 잇서서도 主觀的 經驗論과 客觀的 實在論이 잇다. 主觀的 經驗論은 心物의 區別을 無視하고 萬物은 다 우리가 經驗한 것에서 不過하다는 것이다. 經驗은 다시 心理學的으로 分析하여 心理的 原子를 議論하게 되는 것이다. 經驗은 이 宇宙萬物을 多種, 多樣으로 보게 되는 故로 經驗論은 自然히 多元論을 主張하게 되는 것이다.

客觀的 精神論은 이 宇宙의 實在는 不絶히 變轉變化하는 大活精인데 萬物은 여기서 進化되었다는 것이다. 『헤겔』의 絶對精神과 『소펜하우어[쇼펜하우어]』의 生存意志와 『베르손[베르그송]』의 活力 갖은 것은 비록 그 內的 性質은 各異하다 하드래도 一元論的 活精論에 屬하였다 할 것이다. 『라임니츠[라이프니츠]』가튼 哲人은 이 宇宙의 根本的 構成은 無數한 異形異質의 精神的 原子가 集合하여 되었다 하였스니, 이러한 實體觀은 變轉의 多元的 唯心論이라 하겠다.